30년후 전남 노인이 절반…광주·전남 학생수 반토막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전국 학령인구 38% 급감
유소년 인구 감소율 전남 1위
세종시 제외 전국서 인구 감소
초고령인구 500% 이상 늘어

30년 뒤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학생수가 46%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또, 전남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명 중 46명이상, 그리고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100명 중 9명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른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전국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47년 524만명으로 38.0%(322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만 학령인구가 2017년 5만명에서 2047년 10만명으로 늘어나고 이외 지역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같은 기간 제주도 학령인구는 16.0%, 경기도는 25.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의 학령인구 예상 감소율은 광주가 47.6%, 전남이 46.4%를 각각 기록했다. 또 충남 31.7%, 인천 35.2%, 충북 38.1%, 경남 42.6%, 강원 43.9%, 서울 45.2%, 울산 45.3%, 경북 46.8%, 대구 47.4%, 대전 47.7%, 부산 47.9%, 전북 48.0% 등이었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의 감소폭이 45.9%로 가장 컸고 호남권 43.8%, 중부권 34.2%, 수도권33.7% 순이었다.

학령별로는 고등학교 학령인구인 15~17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에서는 학령인구가 6만명에서 3만명으로 반 토막 났고, 대구(49.5%), 광주 (48.9%), 울산(48.7%) 등의 예상 감소율도 높은 편이었다.

0~14세 유소년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47년 450만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종만 유소년인구가 50.8% 증가하는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유소년인구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4.6%),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6.0%)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유소년 인구가 96만명 줄어 28.7%의 감소세를 보이고 영남권과 호남권, 중부권에서 각각 70만명(42.0%), 30만명(39.2%), 26만명(27.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인구 급증**=전남과 부산 등 전국 8개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년 뒤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전국 평균은 14% 수준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해 30년 새 고령인구는 165.9%(1172만명) 증가한다.

2047년에는 전국 시·도 17곳 중 8곳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선다. 전남이 가장 높은 46.8%로 전망됐으며, 경북(45.4%), 강원(45.0%), 전북(43.9%), 경남(41.4%), 부산(41.0%), 충북(40.6%), 충남(40.0%) 순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추계를 보면 2017년 60만명(1.2%)에서 2047년 366만명(7.5%)으로 늘어난다. 30년 새 512.3%(306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별로 보면 2047년 세종(4.5%)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초고령인구가 6%를 초과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가장 높은 곳은 전남·경북(9.5%)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의 2017년 전국 평균은 36.7명(유소년 17.9명·고령인구 18.8명)이었지만, 2047년에는 90.9명(유소년 17.6명·고령인구 73.3명)으로 껑충 뛴다.

시·도별로 보면 2047년 총부양비는 전남(120.6명), 경북(114.0명), 강원(112.3명), 전북(110.4명), 경남(101.4명) 등 5곳에서 100명을 넘을 전망이다. 피부양자 수가 부양자를 역전한다는 뜻이다. 총부양비 중 고령인구만 따로 본 '노년부양비'를 보면 전남이 204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명(100.2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부양자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D-14…국제방송센터 개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에서 국제방송센터(IBC) 개관식을 열었다. 연면적 3100㎡규모의 국제방송센터는 수영대회 주관 방송사인 MBC와 아사히TV가 대회 기간 국내외 방송사에 방송 제작을 지원한다. 국제 신호 제작·송출도 맡는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 권용일 前선임행정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인사비서관에 권용일(48·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권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 사법시험 41회(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했다. 지난 대선 때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측에 합류해 법률지원 역할을 맡았다. 권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둘러싸고 문 대통령 측 대리인 자격으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합류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이번 인선은 지난달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과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이 임명된데 이어 청와대 내 인사라인을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인사비서관이던 김봉준 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된 것 역시 인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27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초청 강연에서 '자치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치분권 통해 어디서든 잘 사는 공존 공화국 만들자"

김부겸 의원 광주서 강연
"빨갱이 딱지 붙이는 정치 그만"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한 기둥입니다. 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잘 살 수 있는 국가, 공존 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초청 강연에서 '자치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공존 공화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연에서 국내 지방자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척자로서의 안목'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지난 1969년 '사상계'에 쓴 김 전 대통령의 글을 소개하며 "김 전 대통령은 12일간 단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를 이끈 분이다"고 평가했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해야 하며 주민조례발안제, 주민감사청구 요건완화, 주민소환제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해 통해 '기관자치'에서 '주민자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 못지 않게 '정치 양극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빨갱이는 상대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라는 게 정책적인 차이에 불과한데,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반공 하나로 견뎌온 정치 논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국민이 다양한 형태로 내 자식들의 삶을 낫게 할 그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잘 안 된다. 그러니 상대를 낙인찍어서 국민과의 간격을 넓히려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풍토를 정리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성과를 만들어 국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이 집권 세력에 있다"며 "집권당이 무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더 많은 고민과 진지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회의원은 문재인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이다. TK 출신의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며, 장관 임기 내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우~욱~~~

믿고가는 조이투어에서 여름휴가! 떠나세요~!♥

1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1522-1901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Daum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 ↔ 후쿠오카 큐슈 최대 도시
매주 월,수,금,일 출발
◆ [2박3일] 399,000원~ / [3박4일] 59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꼬마열차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349,000원~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뱃놀이 4일 59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2박3일] 동경&하코네 꽉착일정 839,000원~
◆ [3박4일] 동경&하코네 (디즈니랜드선택관광) 1,080,000원~

특가 & 추석연휴
◆ 후쿠오카 초특가 7/10,12,14,17,19,21 출발 399,000원~
◆ 다낭(베트남항공) 6~7월 출발 399,000원!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정통특가 2박4일 749,000원~
◆ [후쿠오카] 9/11,13出 699,000원~ / [동경] 9/12,13出 1,100,000원~

무안 ↔ 몽골 가격은⇩, 상품질은⇧
★매주 수,토 출발★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 울란우데+이르쿠츠크+바이칼 5일 7~9월 出 1,598,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노팁/노옵션]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699,000원~
◆ [고품격/화련]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99,000원~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8일~10월 9일 (총 10항 출발) *연휴 스케줄 상이
[목요일출발] 4일 / [일요일출발] 5일 699,000원~

무안 ↔ 달랏(비엣젯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베트남항공] 매주 화,금출발 / [제주항공] 매일 출발
[다낭&호이안&후에] 39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4일 829,000원~
◆ [금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5일 9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